

사회



“칼바람 미워” 16일 오후 장갑과 목도리, 두터운 방한복으로 온 몸을 감싼 시민들이 동구 금남로를 지나가고 있다. 장갑 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시민들의 잔뜩 움츠린 표정에서 살을 에는 듯한 추위를 느낄 수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기록적 한파 “추위도 너무 춥다”

## 광주천까지 ‘꽂꽂’ ... 화재 등 각종 사고도 속출

### 기름값 고공행진 속 전력 소비량 사상 최대

7년만의 한파가 광주천까지 얼었다. 동구 소태동, 학동 일대 광주천 상류는 지난 14일 하천 양측이 얼어붙기 시작해 16일 거의 전체가 ‘얼음덩어리’로 바뀌었다.

최근 광주·전남지역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로 내려가는 날이 많아지면서 석유값에 부담을 느낀 시민들이 기름보일러 대신 전기장판, 온열기 등으로 추위에 맞서면서 전력 소비량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또 내복이나 목도리, 마스크 등 방한제품이 불타나게 팔리고, ‘눈폭탄’을 우려한 운전자들이 귀가를 서두르는 등 시민들의 일상도 크게 바뀌고 있다.

회사원 이모(39)씨는 지난해 10월 서구 풍암동 아파트에서 북구 두암동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다. 가족은 모두 4명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면서 40일에 약 22만원이나 되는 기름값을 치렀다. 그는 기름보일러 대신 2인용 전기장판 2장과 19.8㎡(6평) 크기의 스탠드 온풍기 1대를 구입해 사용하면서 전기료 10만원 안팎이 늘어났다.

최근 기름값이 연일 치솟으면서 전기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한파가 지속되는데도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기름보일러 대신 전기장판·온풍기 등을 사용하는 가정집이 늘면서 각종 사고도 속출하고 있다.

16일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최대 전력사용량이 지난 12일 490만1000KW를

기록하며 올 겨울 들어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14일 485만2000KW에 이르렀던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이다.

여름 최대 전력사용량은 지난해 8월 23일 기록한 454만4000KW로 올 겨울(지난 12일)보다 35만7000KW 적다.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기름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현재 등유 가격은 한 드림당 21만원.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가량 오른 수치다.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화재 등 각종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8일 북구 문흥동 D아파트에 사는 강모(여·66)씨의 집에서 불이 나 침대·이불·전기장판을 태우고 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5분만에 진화됐다. 확인은 전기장판 과열로 추정되

고 있다.

주부 임모(여·65·북구 두암동)씨는 “낮엔 대부분 시간을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서 보내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있는 노인들은 보일러 대신 전기장판으로 한기를 이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광주·전남본부 김호영(45) 영업총괄팀 차장은 “기름값이 계속 올라 이번 겨울 전기를 이용한 난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추운 날씨에 바람까지 불면서 목포를 비롯한 남해안 주요 항구에서는 먼거리 10여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다. 또 15·16일 광주에서 만 50세 이상 노인 133명, 수도배관 결빙이 50여 건에 달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함바 수사’ 유씨 통화내역 확보 검찰, 인사청탁 여부 수사 확대

건설현장 식당(함바)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65·구수기소)씨가 강력타진 경찰청장을 만날 때마다 인사를 앞둔 일선 경찰관들과 수습차례 통화한 것으로 16일 알려져 인사청탁 여부로 검찰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유씨의 통화 기록을 조회한 결과 강 전 청장이 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경찰관 승진 인사 때 강 전 청장을 만날 때마다 인사 대상 경찰관과

수십통의 통화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담은 유씨의 통화기록 내용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씨 통화기록을 들여다본 결과 적지 않은 경찰 간부가 유씨를 통해 인사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 구체적인 통화내용을 보강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금주 초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검찰 간부와 유씨의 통화내역, 인사 청

탁 등과 관련한 증거를 보완해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함바 브로커 유씨에게서 함바집 운영·수수와 관련된 권의를 받고 있는 김병철 전 울산경찰 부가 유씨를 통해 인사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 구체적인 통화내용을 보강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금주 초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검찰 간부와 유씨의 통화내역, 인사 청

총경 이상 고위간부  
암행감찰 강도 높인다

경찰 조직을 충격에 빠뜨린 ‘함바비리’를 계기로 전국의 총경 이상 경찰 고위간부를 감시하는 경찰 내부의 암행감찰 인력이 확대된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이달 말로 예정된 인사에서 전국 각 지역에서 암행감찰을 벌이는 외근 요원을 기존의 7개 팀(2인1조)에서 10~11개 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고위직이 비리에 연루되면 정장을 16일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유씨와 만난 사실은 있지만, 함바 사업과 관련한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며 비리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연남뉴스

## “돌아앉으시오”

트랙 도는 여성 몸매감상 음흉한 시선·성희롱  
북구청, 두암체육공원 벤치 야산 향하게 바꿔

공원 벤치가 운동장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등지고 설치된 희한한 체육공원이 있다.



광주 북구 두암체육공원에 가면, 운동장에는 트랙을 도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작 운동을 하다가 쉬는 사람들은 운동장 반대 방향으로 설치된 벤치에 앉아 있는 진풍경을 만나게 된다.

벤치가 운동장을 등지고 설치된 탓에 고개를 돌려 훑길 훑길 트랙을 쳐다보는 남성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 공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광주시 북구는 지난해 10월 초 500만원을 들여 두암체육공원 내 타원형 트랙(면적 852㎡) 주변에 주민 휴식을 벤치 5개를 15m 간격으로 설치했다. 이 벤치가 사건의 발단이 됐다. 공원이 좁은 탓에 벤치와 트랙의 거리가 1~2m 밖에 되지 않은 것이 문

제였다.

일부 남성들이 운동은 하지 않고 벤치에 앉아 체육복 차림으로 트랙을 도는 여성들의 가슴과 엉덩이를 음흉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된 것이다. 특히 어떤 이들은 여성의 몸매를 큰소리로 ‘폼퐁’하는 등 대놓고 성희롱을 한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고민 끝에 북구는 최근 벤치 방향을 트랙과 정반대인 야산 쪽으로 바뀌어 놓았다.

북구 관계자는 “오죽하면 벤치 방향을 바꾸었겠느냐”며 “몰염치한 남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나원침 (8222) 김종두



## 중국 어선 4척 나포 서해어업지도사무소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가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선적 쌍타망어선 노영어0847호 등 4척을 붙잡았다.

16일 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 14일과 15일 신안군 흑산도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조업일지 부실기재와 어획량 축소 혐의의 어업지도선에 나포돼 흑산도항으로 압송됐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 관계자는 “이번에 나포된 어선은 우리 해역에서 싸늘이시 조업을 해 집중 감시 대상”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행정 등 관련기관과 공조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민기자 dss6116@

## ‘노상방노 시비’ 이웃간 주먹질

○노상방노를 하던 50대와 우연히 이를 지켜 본 이웃주민이 말싸움 끝에 서로 폭행해 나란히 경찰서행.

○1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박모(52)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55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 자신의 집 인근에서 소변을 보던 중 자신을 쳐다 본 김모(48)씨와 서로 뒤엎고 싸웠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이날 술에 취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소변을 보던 중 때마침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씨가 집을 나와 자신을 쳐다보자 ‘뭘 보느냐’고 따지며 시비를 걸다가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에서 “가던 길이나 가면 되는 것이지 몰그리미 쳐다 봐서 화가 났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옛 경영진 입장 대변 ‘조선대 동창회’ 법적 지위도 인정 못한다

### 광주지법 판결

법원이 조선대학교 옛 경영진 측의 조선대 관련 명칭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옛 경영진 입장을 대변해온 ‘조선대 동창회’의 법적 지위도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합의4부(부장판사 정창호)는 16일 ‘조선대 총동창회’가 ‘조선대 동창회’의 회장, 이사장, 사무국장을 상대로 낸 회장직 부존재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선대 동창회는 일부 동문들이 ‘원로 동문회’를 구성해 친목활동을 한 것일 뿐, 1983년 이후 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존 동창회를 적법하게 승계한

총동창회에서 선출되지 않은 피고들의 지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949년 설립된 ‘조선대 동창회’는 학원 민주화 운동이 진행되던 1987~1988년 간부들이 사퇴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동문들은 1989년 총회를 열어 ‘조선대 동창회’를 ‘조선대 총동창회’로 정관상 명칭을 변경하고, ‘조선대 총동창회’를 설립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박철용 전 총장 일가에 대해 조선대 관련 명칭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조선대 동창회’ 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동창회 측 이의신청도 기각하는 등 옛 경영진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깡’ 소리 듣고 사무실 나왔다 날벼락 담양서 7중 추돌...2명 사망·4명 부상

담양의 한 도로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16일 오후 3시55분께 담양군 고서면 원광리 원광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정모(28·담양군)씨와 위모(51·담양군)씨 등 2명이 숨지고 이모(39·광주시 서구)씨 등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는 레조 승용차가 앞서가

던 정씨의 포터에 승용차를 추돌한 데 이어 뒤따르던 승용차 2대가 연이어 추돌했다.

이어 추돌한 승용차 1대가 사고 충격으로 뒤편에서 가면서 갖가지 주차된 차량 3대를 덮쳤다. 이 과정에서 ‘깡’ 하는 1차 사고 소리를 듣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온 위씨가 사고 승용차에 치여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 9급 공무원 시험 [국·지방직]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b>7급 종합반 (이론)</b>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8:00 (2개월 완성)	<b>9급 종합반 (이론)</b>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법직, 농업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특강/토론/개강)	<b>9급 문제풀이</b> 행정직/세무직/교육행정직/경찰직/교정직 강의시간: 09:00 - 14:00 (4주 완성)	<b>법원/경찰직</b> 강의시간: 09:00-19:20 (2개월 완성) 노량진 유명강사진 총출동!	<b>9급 야간반</b> 강의시간: 19:00-22:00 (3개월 완성)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무원 합격 종합반	<b>농업직/기술직</b> 강의시간: 09:00-15:30 (2개월 완성) 4년 연속 농업직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b>명품 "강력단과"</b>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법직, 농업기술직 강의시간: 15:30 - 18:30 (2개월 완성)	<b>합격률 소망직 (전문)</b> 시험장과 동일, 채점속도 1도인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특강/토론/개강)
--	--	--	---	--	---	---	---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전통] 김영편입학원 227-8088

**개강 1월**